

### 31) 이신범 - 정부전복과 김대중내란 사건 관련 [74]

1. 이름 : 이신범(서울대법대 4년복학)
2. 생년월일 :
3. 사건명 : 정부전복과 김대중내란 사건 관련
4. 사건발생 시기 : 71년, 75년
5. 사건 요약 : 88. 4. 4일 이신범씨는 71년과 75년에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불법연행 당한 뒤, 허위자백을 받기위해 불고문, 전기고문 등을 가하도록 명령한 전두환 전대통령 등을 고소했다.
6. 수사기관 :
7. 고문 : 전기고문, 불고문 등
8. 고소, 고발 여부 : 전두환전대통령, 이학봉전안기부차장, 신직수, 이후락전중정부장 등을 자신으로부터 “정부전복과 김대중씨 내란음모사건에 관련돼있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부하들을 시켜 불법연행해 고문을 가했다고 고소.
9. 출처 : 동아(88. 4. 4)

### 32) 이복진 - 정부 비판 혐의 [75]

1. 이름 : 이복진
2. 생년월일 : 50년생 쯤.
3. 사건명 :
4. 사건발생 시기 : 84. 7. 19
5. 사건 요약 : 84. 7. 19일 이복진씨는 산에 갔다가 막걸리 한잔을 마시고 허공에 대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정부를 비방하고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옥살이 함. 88. 2. 27일 사면조치로 풀려난 이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의 형기를 마친 후 정신분열증환자라 하여 치료감호결정을 받고 또다시 2년 2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야 했다.
6. 출처 : \*\*(88. 5. 15)

### 33) 이철, 민향숙 -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75]

1. 이름 : 이철, 민향숙
2. 생년월일 : 49년생 쯤. 52년생 쯤.
3. 사건명 :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4. 사건 발생 시기 : 75. 12.
5. 사건 요약 : 이철씨는 고대 대학원에 유학중이던 75. 12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위반으로 구속. 이씨는 조총련과 접촉하고, 북한에 다녀왔으며, 국내 대학가에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 이씨는 40일간의 모진 고문에 의해 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 1, 2, 3심에서 모두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그 후 두차례에 걸쳐 무기형에서 20년형으로 감형돼 복역중. 부인 민향숙씨도 당시 간첩방조죄로 3년 6개월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  
이들은 혼인신고를 한 뒤 일본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여권수속을 밟던 중 둘 다 구속됐다. 당시 일본에 있던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구속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세상을 떴고 어머니 역시 시름시름 앓다가 3년만에 사망.
6. 출처 : 한겨레(88. 5. 15)

34) 박충렬, 이민영, 우종원 - 반제동맹 사건 [75, 83, 85, 88, 90, 99, 103, 114, 136]

1. 이름 : 박충렬, 이민영, 문민성, 조정식, 박시중, 김진우, 김현권, 여영학, 이동엽, 전원하, 김진호, 김구현, 이병주, 우종원, 구용희, 김원재, 이의엽, 이광규, 염종영.

2. 사건명(사건번호) : 반제동맹 사건

3. 사건발생 시기 : 1986. 10. 28.

4. 사건 요약 : 자세한 사건 개요 생략.

반제동맹사건은 당시 광범위하게 발생한 용공조작사건의 하나로 19명의 젊은이들이 고통받았다. 반제동맹사건은 이근안 경감 등 대공경찰관 12명이 고문을 통해 조작한 사건.

7. 수사기관 : 경기도경 대공분실

① 박충렬

61년생 쯤.

인천 만수동 소재 경기도경 대공분실 11월 말까지(32일 동안) 영장없이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야만적인 고문을 하루에도 여러차례. 한중철, 이근안 등 10여명의 경찰관으로부터 날개찍이고문 당함. 잠안오는 약으로 보이는 녹색알약 4알씩 먹이며 수사관 3-4명이 잠을 못자게 구타.

1. 고문 : 주먹, 구둣발, 가죽, 쇠파이프 등으로 무차별 때리기·밟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굽기, 통닭구이, 통닭구이자세로 물고문, 통닭구이자세로 고춧가루 고문, 비너꽃기, 입에 재갈물리기,

\* 고문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시도(혀깨물기)했으나, 실패하였고 고문기술자들에게 무차별 폭행당함. 그 후에는 뒤로 수갑 채워진 채 수사받음.

2. 후유증 : 하혈, 고문흔적 남음, 관절염, 신경통, 손 마비, 다리 떨림(정상적으로 걷기 힘들),

\* 손의 마비와 떨림으로 수도꼭지를 틀 때 한손으로 못틀고 두손으로 틀어야 하고, 밥을 먹을 때도 개처럼 활아 먹어야 했음.

② 이민영

62년생 쯤.

불법연행, 영장없는 장기구금, 고문. 36일동안 인천시경 대공분실, 경찰서 등에서 잠안재우기, 물고문 등

1. 고문 : 주먹, 몽둥이 등으로 무차별 구타, 세뇌고문, 통닭구이, 매달기, 잠안재우기, 물고문 등

\* 자살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그때마다 무차별 구타.

\* 사건조작을 위해 “남한혁명은 미제와 괴뢰정권을 타도한 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혁명이다”를 매일 외우게 하였음.

\* 혹독한 고문으로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되어 팔하나 들어올리기도 힘들었음.

③ 엄종영

8. 고문 : (검찰에서 검치 중의 고문에 대해서만 진술하였음)

폭언, 고문한 수사관들이 찾아와 구치감에서 고문(발가벗긴 채 몽둥이로 무차별 구타, 양다리 묶어 거꾸로 매달기, 발바닥 때리기)

④ 우종원

62년생 쯤.

이근안으로부터 통닭구이, 관절꺾기, 물고문, 전기고문 등.

‘관절꺾기고문’을 당하다 기절.

8. 고소, 고발 여부 :

\* 89. 1. 14일 이근안·한종철 등 고문수사관 고소

\* 93. 11. 4일 고문수사관 고소사건 공소시효 만료

\* 94년 1. 13일 손해배상청구소송(국가를 상대로 각각 3천만원씩 모두 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 89. 3. 3일 고소인 2명만 한차례 불러 진술을 들었을 뿐 수사의 진전없었음.

9. 수사관 처벌 여부 : 고소했으나 구체적 수사착수하지 않았으며 공소시효 만료되었음.

10. 기타 : \*\* 이승룡(64년생 쯤) - 노동쟁의 관련 구속자

11. 출처 : 반제동맹사건 재판 기록 「예속의 사슬을 끊고 통일의 그날까지」, (출처 불분명), 1987. 10.  
한겨레(88. 5. 15) \*\* (91. 8. 1) 한겨레(88. 12. 22) \*\* (88. 12. 22) 한겨레(88. 12. 23) 한겨레(89. 1. 12) 동아(89. 1. 12) 한국(89. 1. 12) 한겨레(89. 3. 4) 한겨레(89. 8. 29) 한겨레(90. 1. 6) 한겨레 (94. 1. 13) 한국 (94. 1. 13)

35) 이영석, 이해수 - 룬살롱 지배인 청부폭력피의자 물고문 사건  
[76]

1. 이름 : 이영석, 이해수
2. 생년월일 : 47년생 쯤. 63년생 쯤.
3. 사건명 : 룬살롱 지배인 청부폭력피의자 물고문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8. 5. 12.
5. 사건 요약 : D살롱지배인 최종덕씨(34) 폭행사건 피의자인 룬살롱사장 이영석씨와 이씨의 경호원 이해수씨는 서초경찰서 최정완(32)경장, 최동호(30)순경, 김봉선(30)순경에게 자백을 강요당하며 물고문을 받았다.
6. 수사기관 : 서초경찰서
7. 고문 : 물고문 등.
8. 수사관 처벌 여부 : 최정완(32)경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최동호(30)순경, 김봉선(30)순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9. 출처 : 동아(88. 7. 8)

36) 노향기 - 80년 기협 계엄포고령 위반 사건 [78]

1. 이름 : 노향기
2. 생년월일 : 41년생 쯤.
3. 사건명 : 80년 기협 계엄포고령 위반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0. 5.
5. 사건 요약 : 80년 5월 기협간부들이 모여 계엄사의 검열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것이 문제돼 계속 수사를 받아오다 6월말 남영동 분실로 잡혀갔다. 1주일 정도 있는 동안 옥조에 머리를 치박는 물고문과 고춧가루물고문 등. 수사관들은 흥분상태에서 계속 몽둥이 구타, 이근한 경위
6. 수사기관 :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7. 고문 : 물고문, 고춧가루물고문, 몽둥이구타 등.
8. 후유증 : 구타로 척추가 비껴나가면서 그대로 굳어버려 지금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심각한 통증(88. 10. 25)
9. 수사관 처벌 여부 : 이근한 경위는 고문수사의 공으로 '청룡봉사상'까지 받음.
10. 출처 : 한겨레(88. 10. 25)

37) 이수원, 백영기, 김경범 - 의정부 여고생 공모양 살인사건 [82]

1. 이름 : 이수원, 백영기, 김경범
2. 생년월일 : 70년생 쫘, 70년생 쫘, 70년생 쫘.
3. 사건명 : 의정부 여고생 공모양 살인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7. 7. 27
5. 사건 요약 : 87. 6. 2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에서 여고생 공모양(당시 19세)이 과도로 목부분을 20여차례 찢린 시체로 발견. 87. 7. 27일 서울동대문구 면목동 모공사장에서 잠역부로 일하던 이수원군은 영문도 모른채 경찰서로 연행. 혹독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 동네 친구인 백영기, 김경범군도 공범이 된다.  
1년4개월10일동안 억울한 옥살이.
6. 수사 기관 : 의정부 경찰서
7. 고문 : 잠안재우기, 각목을 다리사이에 끼워 비틀기, 코에 물붓기 등.
8. 재판 관련 사항 : 1심 무기징역, 2심 무기징역, 대법원 원심파기, 서울고법 무죄.
9. 출처 : \*\*(88. 12. 11)



38) 이수일, 이철 - 남민전 [83, 85, 88, 90]

1. 이름 : 이수일, 이철
2. 생년월일 : 53년생 쯤, 53년생 쯤.
3. 사건명 : 남민전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79.
5. 사건 요약 : 이수일씨는 79년 남민전 사건으로 복역하다 88. 12. 21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6. 수사기관 : 치안본부
7. 고문 :  
<이수일> 몽둥이 구타, 불펜고문 등.  
수감채워 의자에 앉히고 박달나무 몽둥이로 허벅지 1시간 가량 구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허벅지 찌르기 등.  
<이철> 이근안으로부터 통닭구이, 관절쪼기,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각종 고문 당함.
8. 후유증 : 1주일 동안 걷지 못함.
9. 고소, 고발 여부 : 고문수사관 이근안은 80. 4월 남민전관련 피의자들에 의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서울형사지법법정에 섰으나 증거가 없어 무죄판결을 받음.
10. 수사관 처벌 여부 : 고문수사관 이근안  
경감은 79. 10월부터 치안본부에 근무하다 84년 경감으로 승진, 85. 3월 경기도경으로 전출.
11. 출처 : \*\*(91. 8. 1) 한겨레(88. 12. 22) \*\* (88. 12. 22) 중앙(88. 12. 23)

### 39) 김성학 -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83, 127, 136]

1. 이름 : 김성학(전과상. 경기 하남시)
2. 생년월일 : 51년생 쯤.
3. 사건명 :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5. 12.
5. 사건 요약 : 김성학씨는 71년 오징어잡이를 하다 납북돼 72년에 귀환했다. 85. 12. 2일 영장없이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연행돼 이근안 등 경찰들에게 갖은 고문을 당하고 불법구금 72일만인 86. 2월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6. 수사 기관 : 경기도경 대공분실
7. 고문 : 전기고문, 물고문, 잠안채우기, 굶기기 등.
8. 재판 관련 사항 : 대법원에 의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음(89. 9. 29).
9. 수사관 처벌 여부 : 이근안 경감 종적 묘연.
10. 고소, 고발 여부 :
  - \* 경기도경 대공분실 소속 경찰관 16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계류중(90. 1. 6)
  - \* 김씨의 재정신청(87. 12. 제출)사건은 2년이 넘었는데도 결정 미뤄짐(90. 1. 6)
11. 출처 : \*\* (91. 8. 1) 한겨레(89. 9. 30) 한겨레(90. 1. 6)

#### 40) 김영애 - 부산미문화원사건 관련 [84, 135]

1. 이름 : 김영애
2. 생년월일 : 58년생 쯤.
3. 사건명 : 부산미문화원사건 관련
4. 사건발생 시기 : 88.
5. 사건 요약 : 부산미문화원사건 관련자들을 숨겨준 혐의로 구속됐던 전 원주치악산서점주인 김영애씨는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다.(국제평화대행진 추진경과 및 임수경 방북일정 등을 유럽민협외 어수갑씨에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의 자진지원 기밀누설혐의로 구속 기소) 김씨는 안기부가 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한 뒤 3일이 지난 뒤에야 영장을 발부받아 중부경찰서로 단 10분간 옮겨 놓았다가 다시 데려갔다고 증언. “당시 안기부에서 임신중인 것 같으니 제발 구타만은 말아달라로 호소”했음에도 수사관들은 구타를 계속 해 서울구치소로 옮겨진 뒤 보름간 하혈.
6. 수사 기관 :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7. 고문 : 팬티만 입히기, 물고문, 담요로 몸을 감싼 뒤 쇠파이프로 구타 등.
8. 후유증 : 유산
9. 출처 : \*\*(88. 12. 20) 한겨레(89. 12. 16)

#### 41) 라원규, 김태홍 - 기자협회 사건 [85, 88]

##### ① 라원규

1. 이름 : 라원규
2. 생년월일 : 44년생 쯤.
3. 사건명 : 기자협회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0. 7. 7
5. 사건 요약 : 라원규(당시 서울 도봉구청 하수계장)씨는 기자협회사건과 관련, 연행돼 3일간 남영동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고문조사를 받은 후 4년여 동안 상반신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고문후유증에 크게 시달렸다.
6. 수사기관 :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7. 고문 : 물고문, 팬티만 입히기, 무차별 구타, 유리재떨이로 얼굴 정면 때리기 등.  
이근안으로부터 얼굴·배 등 무차별 구타당함, 유리재떨이로 맞아 피를 철철 흘림, 이근안 등 3-4명이 육조턱에 목을 눌러 물고문을 해 3차례 실신.
8. 후유증 : 4년여 동안 상반신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고문후유증.

##### ② 김태홍

1. 이름 : 김태홍
2. 생년월일 : 43년생 쯤.
3. 사건명 : 기자협회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0. 8. 28
5. 사건 요약 : 김태홍(당시 기자협회 회장)80. 8. 28일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 돼 10. 2일까지 35여일 동안 이근안 등 수사관으로부터 고문수사를 받았다. 이근안으로부터 자신이 중앙정보부 등 타기관에까지 초빙돼 고문을 담당했다는 말을 직접 들음.
6. 수사 기관 :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7. 고문 : 시멘트 바닥에 3시간 동안 무릎을 꿇려 놓았다가 이경감이 자기 무릎으로 허벅지를 찍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음.
9. 출처 : \*\*(88. 12. 22) 한겨레(88. 12. 22)

## 42) 황인호, 황인호의 여동생, 권운상 - 미스유니버스대회 폭파음모 사건 [92, 94, 95]

1. 이름 : 황인호, 황인호의 여동생, 권운상.
2. 생년월일 : 56년생 쯤. 미상, 54년생쯤.
3. 사건명 : 미스유니버스대회 폭파음모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0. 6. 27

5. 사건 요약 : 황인호씨는 80. 6. 27일 정선경찰서에 체포돼 각종 고문을 당했다. 정선경찰서에서 권기호 정선경찰서장과 함성수 수사과장으로 부터 고문. 서울로 이첩돼 6. 28일 계엄사 합수본부 산하 치안본부 특수대에서 안희상 총경의 지휘 아래 윤충훈, 오아무개, 유아무개 등의 경찰관과 헌병 7-8명으로부터 고문을 당한 뒤 7. 8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경위에게 전기고문. 7. 2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도 군검찰 취조과정에서 8. 1일 수경사 검찰부장 신건수 대위의 지시를 받은 헌병 3명으로부터 집단폭행.

또한 사건과 아무 관련없는 황씨의 여동생이 6. 30일 치안본부 특수대장실로 불려와 안희상 총경의 지시를 받은 특수대 3반장 권아무개 경감의 지휘하에 윤충훈씨 등 3명의 경찰관이 황씨 및 함께 조사를 받던 권운상(54년생 쯤)씨 등이 보는 앞에서 동생을 발가벗기고 수갑을 뒤로 채워 코에 물을 붓는 고문을 두차례나 했다.

권운상씨에 따르면 “이근안경위는 예측불허였다. 갑자기 방에 들어와 넙죽 큰절을 하고 존대말을 쓰며 횡설수설하고는 획 나갔다가 불시에 들이닥쳐 개처럼 패곤했다” 한다.

6. 수사 기관 : 정선경찰서, 계엄사 합수본부 산하 치안본부 특수대, 서울구치소
7. 고문 :

<황인호> 손과 발목에 수갑을 찬 채 코에 물붓기·고춧가루물고문, 비너꽃기, 통닭구이, 무릎에 몽둥이 끼우고 경찰관 3명이 교대로 뛰어내리기, 발가벗고 거꾸로 매달려 비행기 타기, 7-8명이 몽둥이와 고무호스로 무차별 구타하기, 손톱 밑을 바늘로 찌르기, 전기고문 등.

<황인호의 여동생> 발가벗기기, 수갑을 뒤로 채워 코에 물을 붓는 고문.

8. 출처 : 한겨레(88. 12. 25) 한겨레(88. 12. 27) 한겨레(88. 12. 28)

#### 43) 김성식, 윤성구, 김찬 - 제헌의회 사건 [92]

1. 이름 : 김성식, 윤성구, 김찬
2. 생년월일 :
3. 사건명 : 제헌의회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6. 11.
5. 사건 요약 : 김성식, 윤성구, 김찬씨는 86. 11일 제헌의회 사건으로 안기부에 연행, 이듬해 1월까지 50여일간 불법구금당하여 고문을 받았다. 당시 사건을 총괄한 사람은 박희방씨며 직접 취조한 사람은 안기부 1국1단 강계장팀. 김성식을 직접 취조했던 사람은 30대의 김남곤이라는 조사관과 185센치 키의 '깍'이라는 조사관.
6. 수사 기관 : 안기부
7. 고문 : 통닭구이, 무릎사이에 각목끼우고 짓밟기, 무차별 구타 등.  
하반신 전체가 멍들어 검게 변할 만큼 고문을 받았으며, 안티프라민 등을 주어 멍을 빼게 한 뒤 다시 고문 가함.
8. 출처 : 한겨레(88. 12. 25)

#### 44) 권오정 - 주민연행 자백강요 가혹행위 [97, 98]

1. 이름 : 권오정
2. 생년월일 : 65년생 쯤.
3. 사건명 :
4. 사건발생 시기 : 88. 12. 26.
5. 사건 요약 : 용인경찰서는 주민 이모씨(26)로부터 26일 새벽 3시경 권오정씨가 박해만씨(57)집 담을 넘는 것을 보았다는 허위신고를 받고 권씨를 연행, 고문. 권오정씨는 경찰서에 연행돼 26일 오후 4시경부터 9시까지(5시간동안) 가혹행위를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입음.
6. 수사 기관 : 용인 경찰서
7. 고문 : 어깨꺾기, 볼펜끼워 손가락 발로 밟기 등.
8. 수사관 처벌 여부 : 고문한 최정원(32)경장을 독직폭행혐의로 구속하고 이기학(26), 신종균(28)순경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9. 출처 : 동아(88. 12. 30) 한겨레(89. 1. 1)

45) 강정순, (박모, 김모, ㅅ모, 신모) - 경찰의 여성 추행(성고문) 사건  
[100]

1. 이름 : 강정순, 박모, 김모, ㅅ모, 신모

① 강정순 - 대구다방여종업원 경찰서 윤간 사건

2. 생년월일 : 61년생 쯤.

3. 사건명 : 대구다방여종업원 경찰서 윤간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8. 12. 5

5. 사건 요약 : 12. 5일 대구 다방종업원 강정순씨는 근무를 마치고 밤 11시경 귀가하려 택시를 기다리던 중 대현1동 파출소의 김정부(49)차석과 백승근(29)순경에게 강제로 파출소 내로 끌려가 윤간했다. 강씨는 이 사건을 덮어두려했으나 성병까지 걸리게 돼 고소했다. 검찰은 세사람 모두 똑같이 성병균의 일종인 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발표. 경찰쪽은 강정순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강간피해자 강정순씨를 참석시킨 가운데 1. 16일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 발표.

② 박아무개

1. 이름 : 박아무개

2. 생년월일 : 62년생 쯤.

3. 사건명 :

4. 사건발생 시기 : 78. 7. 17

5. 사건 요약 : 78. 7. 17일 부산시 서부경찰서 아미파출소에서 허아무개순경과 오아무개 방범대원이 공장내 도난사건의 용의자로 연행된 박아무개(17)양을 몸수색이라는 명목으로 목욕탕으로 끌고가 윤간.

6. 출처 : 한겨레(89. 1. 18 - 조선78. 7. 24일에서 발췌)

③ 김아무개

1. 이름 : 김아무개

2. 생년월일 : 61년생 쯤.

3. 사건명 :

4. 사건발생 시기 : 84. 2. 24.

5. 사건 요약 : 84. 2. 24일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의 시비 끝에 숙직실에 보호되어 있던 김아무개(24)씨를 오아무개(27)순경이 새벽 3시50분경에 강제추행.

6. 출처 : 한겨레(89. 1. 18 - 동아84. 2. 28일에서 발췌)



④ 사양

1. 이름 : 사 양
2. 생년월일 :
3. 사건명 :
4. 사건발생 시기 : 86. 4. 7.
5. 사건 요약 : 86. 4. 7일 서울 태릉경찰서 형사계 소속 신동영(4)씨는 식품을 훔치다 연행되어온 사양을 “내 말을 잘 들으면 불구속처리해 주겠다”며 강제추행.
6. 출처 : 한겨레(89. 1. 18) - 동아86. 12. 15일에서 발췌)

⑤ 신아무개

1. 이름 : 신아무개
  2. 생년월일 : 63년생 줌.
  3. 사건명 :
  4. 사건발생 시기 : 87. 8. 1.
  5. 사건 요약 : 87. 8. 1일 전남 고흥군 고흥경찰서 풍양지서 김아무개(27)순경은 같은 마을의 임신 6개월의 신아무개(26)씨를 강간, 신씨는 이 사실 때문에 괴로워해오다 88. 5월 음독자살.
  6. 출처 : 한겨레(89. 1. 18) - 한겨레88. 12. 14일에서 발췌)
2. 출처 : 한겨레(89. 1. 18)

46) 황종수, 김진한, 정택구 등 15명 - 창원경찰서 노동자 전자봉 고문 [104, 105]

1. 이름 : 황종수, 김진한, 정택구
2. 생년월일 : 67년생 쯤, 65년생쯤, 67년생 쯤.
3. 사건명 : 창원경찰서 노동자 전자봉 고문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9. 4. 24.
5. 사건 요약 : 마창지역시위와 관련, 경찰에 연행됐던 금성사 창원1공장 근로자 황종수, 김진한, 정택구 등 15명은 경찰서형사계사무실에서 전자봉으로 전자고문을 당했다.
6. 수사기관 : 창원경찰서
7. 고문 : 전자봉을 손으로 잡게 하거나 전신을 문지려 충격을 주어 피하출혈. 2주진단.
8. 고소, 고발 여부 : 89. 5. 20일 마산·창원 임금인상투쟁본부는 산하 노조원 9,863명이 연대서명한 고발장을 마산지검에 제출.
9. 출처 : 동아(89. 4. 29) 한겨레(89. 5. 3) 한겨레(89. 5. 21) 한겨레(89. 5. 21) 한겨레(89. 5. 24)

47) 이철규 - 의문사 사건 [106, 107]

1. 이름 : 이철규
2. 생년월일 :
3. 사건명 : 이철규 의문사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9. 5.
5. 사건 요약 : 조선대생 이철규씨의 시신이 물위에 떠올랐다.
6. 출처 : 한겨레(89. 5. 20) 한겨레(89. 5. 20)

48) 차일환, 홍성담, 문부식, 고현주, 서경원, 이길재, 방양균 - 평양축전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관련, 서경원 의원 관련. [111, 112, 113, 114, 115, 123, 124, 125, 136, 137]

① 차일환

1. 이름 : 차일환

2. 생년월일 : 60년생 쯤.

3. 사건명 :

4. 사건발생 시기 : 89. 8. 6.

5. 사건요약 : 화가 차일환씨는 평양축전기間に 전시된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와 관련, 6일 국가보안법혐의로 구속되어 고문 수사를 받았다. 차씨는 가족과 변호사에게 고문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복고문'을 당했다.

고문 : 잠안재우기, 열중쉬어 자세에서 무차별 구타(얼굴과 가슴 집중 구타) 등.

② 홍성담

1. 이름 : 홍성담

2. 생년월일 : 56년생 쯤.

89. 7. 31일 안기부에 강제연행된 뒤 3-4명의 수사관으로부터 야전침대 각목으로 손과 머리 구타당함, 책상 위의 손등을 딱딱한 슬리퍼로 때리기, 홍씨의 오른쪽 무릎에 멍든 자국있음. 발가벗긴 상태에서 하루 2-3시간씩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은 채 구둣발로 무릎을 짓밟혀 생긴 멍.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 22일 검찰에 송치된 뒤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안기부요원들이 옆에서 감시 해 허위자백. 안기부는 3일 홍씨를 구속한 뒤 한번도 접견·면회를 시켜주지않은 채 구속만기일인 22일 검찰에 송치. 24일에야 변호사 접견.

잠안재우기(철야조사)

누워있으면 귀안이 심하게 아픔, 고문으로 인한 노이로제는 상당히 나아짐(89. 9. 5)

③정하수

52년생 쯤.

정하수(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 공동대표)씨도 머리를 바닥에 박고 손을 등뒤로 잡는 '원산폭격' 상태에서 구타 등의 심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

잠안재우기

④ 문부식, 고현주(전민련 국제협력국 간사)

60년생쯤. 63년생 쯤.

안기부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

<문부식>89. 7. 28. 새벽 2시께 안기부로 연행돼자마자 무릎을 꿇리고 양팔을 앞으로 뻗치게 하고 대형 스테이플러를 가슴에 던졌으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구타, 이어 뺨과 목을 심하게 맞았으며 구둣발에 명치를 채었고 등을 수없이 짓밟힘. 허위자백.

.. <고현주> 수없이 구타.

\*\*\*\*\*

⑤ 서의원 관련 사건

1. 이름 : 이길재(50), 방양균(34)

2. 생년월일 : 40년생쯤. 56년생쯤.

잠안재우기, 방씨는 얼굴과 왼손에 고문을 당해 노이로제등 정신장애현상을 일으킴.

서경원의원은 잠을 못자 “차라리 지금 사형집행해 달라”고 호소.

6. 고소, 고발 여부 : 가족들은 안기부장과 수사관들을 고소하는 한편 홍씨의 상처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 홍성담씨는 89. 12. 8일 자신을 수사했던 신원미상의 안기부 수사관 2명의 몽타주를 그려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차일환씨도 안기부 인천분실 소속 이인희씨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으나 아직 고소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음(90. 1. 6) 89. 12. 29일 집행유예 석방.

차일환씨와 민가협에 협박전화(90. 1. 6)

7. 재판 관련 사항 : 서울형사지법은 방양균씨와 홍성담씨의 변호인단의 고문흔적에 대한 신체검증등 증거보전신청을 받아 들여 ‘상처딱지’를 발견, 사진촬영(89. 9. 8)

홍씨의 신체감정결과 둔기에 의해 약 2-6주 전에 생긴것이라 결론. 홍씨의 진술과 일치.

8. 출처 : 한겨레(89. 8. 23) 한겨레(89. 8. 26) 한겨레(89. 8. 29) 한겨레(89. 9. 5)한겨레(89. 9. 29) 한겨레(89. 8. 29) \*\* (89. 9. 8) 한겨레(89. 9. 23) 한겨레(90. 1. 6) 한겨레(90. 1. 9)

49) 김정환 - 국민대생 고문폭로 양심선언 [116, 117, 118, 119, 120, 122]

1. 이름 : 김정환(국민대 전 문과대학생회장)
2. 생년월일 : 67년생 쯤.
3. 사건명 : 국민대생 고문폭로 양심선언
4. 사건발생 시기 : 89. 8. 9.
5. 사건 요약 : 8. 9일 수사기관원들에게 불법연행돼 수배된 동료학생의 소재를 추궁당하며 흉구덩이에 들어가 파묻힐뻔하는 등 고문과 협박을 당함. 김씨가 그후 협박에 굴복, 학내사정을 알려주어왔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전화번호는 군보안사령부 것으로 밝혀졌으며 김군이 수사기관원들이 타고 다녔다고 주장하는 승용차는 보안부대 근무자의 소유로 밝혀졌다. 수사기관원들은 김군을 납치, 수갑을 채우고 눈을 가린채 야산으로 데려가 몸을 천으로 감싼 다음 미리 파놓은 1미터 깊이의 흉구덩이에 누인 뒤 삽으로 흙을 퍼부으며 30여분가량 협박.

김정환씨는 89. 8. 28일 수사기관으로부터 동료학생의 소재를 추궁받으며 생매장시키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정환씨는 협박에 못이겨 친구의 이름을 밝힘.

국방부는 김군의 양심선언에 대해 허위날조된 것이라며 고소하겠다고 밝힘.

보안사는 이 사건이 입수경양 밀입북사건과 관련, 수배된 대학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으로 밝힘.

6. 수사기관 : 보안사
7. 고문 : 생매장 협박과 고문.
8. 고소, 고발 여부 :
  - \* 국민대생 양심선언 대책위를 발족. 위원회는 보안사 김건우, 김효수 수사관등 사건관련자 6명을 납치 폭행 살인미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 \* 수사관 김씨 등은 89. 9. 1일 김정환군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 \* 89. 9. 8일 서울지검은 김정환군과 보안사 수사관 김효수, 김건우씨등을 11일 소환, 조사키로.
9. 출처 : 동아(89. 8. 29) 동아(89. 8. 29) 동아(89. 8. 29) 동아(89. 8. 30) 동아(89. 8. 30) 동아(89. 8. 31) 동아(89. 9. 1) 동아(89. 9. 4) 동아(89. 9. 8) 동아(89. 9. 9)

## 50) 박명률 - 세관원이 물고문 [126]

1. 이름 : 박명률
2. 생년월일 : 54년생쯤.
3. 사건명 :
4. 사건발생 시기 : 86. 4. 27.
5. 사건 요약 : 부산세관 수사계장 임홍우(50)씨와 관세주사보 양현배(38)씨 등은 86. 4. 27일 부산세관 수사계 조사실에서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명률(부산 수출업체 해진상사 전대표)씨에 가혹행위를 가했다. 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포탈) 사건으로 조사 받음.
6. 수사 기관 : 부산 세관 수사과
7. 고문 : 집단폭행, 발가벗기기, 물고문, 포장용테이프로 눈가리기 등.  
물고문은 알몸으로 고문대에 눕혀 양발목을 묶고 손에 수갑을 채운 뒤 얼굴에 수건을 덮고 주전자로 코에 물을 부었다.
8. 후유증 : 경부종창, 양쪽손목종창, 좌측관절후부찰과상 및 피부종창(신체적), 충격적 사건의 심리적 재경험, 수시로 일어나는 정신기능의 일시적 둔마 내지는 마비, 반복되는 악몽(정신적) 등(90. 6. 9).
9. 고소, 고발 여부 : 26주의 진단서 첨부, 부산지법에 고문세관원 임홍우씨(50)와 심현배씨(37)등 2명의 구속조치를 요망하는 탄원서를 냈다.
10. 출처 : 동아(89. 9. 27) 한겨레(89. 9. 28) 동아 (90. 6. 9)

51) 신모군 등 3명 - 노동관련 포스터 붙이다 연행 [128]

1. 이름 : 신모군(인천세일고 2) 등 3명
2. 생년월일 : 72년생 쯤.
3. 사건명 :
4. 사건발생 시기 : 89. 10. 25.
5. 사건 요약 : 89. 10. 25일 신모군(인천세일고 2) 등 3명은 중간고사기간중 오후시간을 이용 아르바이트로 노동자대학 발행의 「일터의 함성」 이란 포스터 3백여장을 붙이던 중 사복경찰관 7, 8명에게 연행돼 인근 파출소와 중부경찰서로 끌려가 7시간 동안 5차례에 걸쳐 폭행당함. 이들은 담임교사가 신병 인수서를 써준 후 풀려 남.
6. 수사기관 : 인천중부경찰서
7. 고문 : 구타, 기합 등.  
7시간 동안 무릎을 꿇린채 주먹으로 머리 어깨 옆구리 등을 5차례 폭행당함.
8. 출처 : \*\*(89. 10. 28)



52) 이인원 - 뇌물수뢰공무원 고문수사 사건 [130, 131, 132]

1. 이름 : 이인원
2. 생년월일 : 45년생 쯤.
3. 사건명 : 뇌물수뢰공무원 고문수사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8. 12. 14.
5. 사건 요약 : 상호신용금고 법개정에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1,15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원(재무부 이재국중소금융과장)씨는 검찰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했다. 폭행으로 인해 심한 모멸감과 좌절감에 빠진 상태에서 이상률 검사가 회유함에 따라 허위자백하였음.
6. 수사기관 : 검찰?
7. 고문 : 사무실 바닥에 강제로 꿰어앉히고 머리와 뺨을 때리는 등 폭행.
8. 출처 : \*\*(89. 10. 28) 한겨레(89. 10. 29) 동아(89. 10. 29)

### 53) 이창국 - 간첩조작 사건 [134]

1. 이름 : 이창국
2. 생년월일 :
3. 사건명 : 간첩조작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4. 5. 1.
5. 사건 요약 : 이창국(인천창영교회 장로)는 77일동안 안기부 남산 지하실에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에 못이겨 허위자백. 간첩으로 조작돼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안동교도소에서 복역중. 인천 기독교목회자협의회 인권위원회는 고문수사에 의한 간첩조작사건이라는 진상보고서를 발표하고 전면 재조사 요구.
6. 수사기관 : 안기부
7. 출처 : 한겨레(89. 12. 15)

54) 김진기, 김전석 - 주공 전세금 사건. 치본 시민불법연행 고문  
[138, 139, 140]

1. 이름 : 김진기
2. 생년월일 :
3. 사건명 : 주공 전세금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7. 9. 23
5. 사건 요약 : 치안본부 특수수사대가 주택공사로부터 전세금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수사의뢰를 받고 전 건물주 김진기씨를 불법연행, 가혹·고문수하로 허위자술서 받아냄.
6. 수사기관 :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수사관 : 박하상, 이영희, 복진선 경위 등)
7. 고문 : 잠안재우기, 구뚫발로 짓밟기, 무차별 전신구타,
8. 후유증 : 전치 10일의 타박상, 89. 5.월까지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음.
9. 재판관련 사항 : 서울고법에서 90. 6. 16일 주택공사가 김진기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주택공사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림.
10. 출처 : 한겨레(90. 1. 17) \*\* (90. 1. 17) 동아(90. 1. 17)

# 별지 하나) 고문관련신문기사 I - 차례

번호	피해자(사건명)	발생 연도	관련 쪽	비고
1	안양천변살인사건혐의	73(?)	2	
2	고숙중(윤경화노파살인)	81. 8	4, 7, 9, 29, 31, 35, 42, 44, 46, 51	
3	김근조(한일합섬이사)	83. 3. 22	5, 6, 7, 9, 23, 29, 31, 35, 41, 44, 46, 51	「고문유형화 - 11」
4	장기한(수양어머니살해)	81. 7. 12	6	
5	장모군, 정모군(박상은양 살해)	81 - 83쪽	7	
6	이세근(한강중화재)	84. 10. 17	8, 13, 14	「II-18」
7	김시훈(살해)	81. 7. 12	9, 23, 29, 31, 35, 44, 59, 95	
8	김근태(민추위) - 이을호, 문용식, 박문식, 허인회	85. 8. 24	9, 10, 29, 35, 37, 43, 44, 49, 51, 59, 75, 78, 85, 88, 90, 91, 94, 95, 110, 115, 129, 136	
9	김명복, 윤승한(도박피해 자고문)	86. 2. 1	11, 12	
10	김문수(서노련/인천사태), 유시주	86. 5. 6	11, 13, 37, 59, 75, 92, 95	
11	5·3인천사태(배영미, 온태 회 등)	86. 5. 3	12, 13, 15, 37, 59	
12	이모피고인 등 2명(특수절 도)	86. 10.(?)	13	
13	권인숙(성고문)	86. 6. 4	14, 15, 16, 17, 18, 19, 23, 25, 26, 29, 31, 35, 37, 44, 51, 59, 72, 73, 75, 88, 91, 95, 110, 129, 136	
14	야당의원 13명 고문(최형 우, 김한수, 강근호 등)	72. 10	19, 23, 29, 32, 43	
15	김상복, 고경대, 고경미(보 임·다산 출판기획사)	86. 3. 25	20, 21, 37, 78, 95	
16	박종철	87. 1	30, 32, 33, 35, 37, 38, 39, 42, 44, 45, 46, 51, 57, 75, 110	
17	박모군, 이왕준(서울대자 민투)	86. 5. 25	32, 59	
18	장영인, 채모양(박영진 장 례 관련)	86. 3. 25	32	

번호	피해자(사건명)	발생 연도	관련 쪽	비고
19	신윤남(서울대프락치)	84. 11	37, 43	
20	김동철, 김정호(건대사태)	8*(?)	37, 59	
21	우종원, 신호수, 김성수(변사)	85. 10. 11 86. 6. 11 186. 6. 21	37, 54, 57, 75	
22	박호영, 박해선, 신백현(당구장주인살해)	83. 2. 3	42, 49	
23	정재용(관급도서 저자)	75. 1. 9	43	
24	조기영	? (재판 87. 1. 21)	48	
25	이태복(전노련)	81. 6. 10	59, 78, 84, 95	
26	명노열(수원경찰서수사중녀사)	88. 1	69, 74	
27	고모군 등 2명(강도, 강간)	87. 11. 8	70	
28	김인중	87. 5. 28	70	
29	김해성(목사)	87. 2. 22	70	
30	윤여연(민청련)	86. 11. 14	70	

번호	피해자(사건명)	발생 연도	관련 쪽	비고
31	이신범(김대중내란)	71. 75. (고소 88. 4. 4)	74	
	김세진	자료미비	75	
	박영진		75	
	오한섭		75	
	이한열		75, 134	
	이석규		75	
32	이복진	84. 7. 19	75	
33	이철, 민향숙(재일교포유 학생간첩단)	75. 12	75	
34	박충렬, 이민영, 우종원, 이 승룡(반제동맹)	86. 10. 28	75, 83, 85, 88, 90, 99, 103, 114, 136	
35	이영석, 이해수(룸살롱지 매인폭행)	88. 5. 12	76	
36	노향기(기협계엄령포고령 위반)	80. 5	78	
37	이수원, 백영기, 김경범(여 고생살인)	87. 7. 27	82	
38	이수일, 이철(남민전)	79	83, 85, 88, 90	
39	김성학(납북어부)	85. 12	83, 127, 136	
40	김영애(부산미문화원관련)	88	84, 135	
41	라원규, 김태홍(기자협)	80. 7. 7	85, 88	
	무림	자료미비	85	
42	황인호, 황인호의 여동생, 권운상(미스유니버스대회 폭파음모사건)	80. 6. 27	92, 94, 95	
43	김성식, 윤성구, 김찬(제헌 의회)	86. 11	92	
44	권오정(절도허위)	88. 12. 26	97, 98	

번호	피해자(사건명)	발생 연도	관련 쪽	비고
45	강정순, 박모, 김모, 스모, 신모, (성고문피해자)	88. 12. 5 등	100	
46	황종수, 김진한, 정택구 등 15(창원노동자 전자봉고문)	89. 4. 24	104, 105	
47	이철규	89. 5	106, 107	
48	차일환, 홍성담, 정하수	89. 7. 31  평양축전 결개그림사 건과 서의 원사건의 관계 잘 모 르겠음.	111, 112, 113, 114, 115, 123, 124, 125, 136, 137	「Ⅱ-21」
	서경원(의원)		111, 114	
	문부식		111	
	고현주		111	
	이길재		114	
	방양균		114, 123	
49	김정환(국민대생 고문폭로 양심선언)	89. 8. 9	116, 117, 118, 119, 120, 122	
50	박명률	86. 4. 27	126	「Ⅱ-3-2」
51	신모군 등 3명(노동관련 포스터)	89. 10. 25	128	
52	이인원(벼물수퇴공무원)	88. 12. 14	130, 131, 132	
53	이창국(장로. 간첩조작)	84. 5. 1	134	
54	김진기, 김진석(치본, 주택 공사. 전세금)	87. 9. 23	138, 139, 140	「Ⅱ-4」 *에 연도 89로 되어 있음. 87 로 정정

# 별지두울) 고문관련신문기사 I - 쪽 별 정리

1. 별도(각국의 고문)
2. 안양천변 살인사건 혐의
3. 별도(엠네스티)
4. 고숙중
5. 별도(덴마크 치료센터)  
김근조
6. 김근조, 장기한
7. 고숙중, 장모군, 정모군, 김근조  
별도(미국)
8. 이세근(한강중 화재사건), 김근조
9. 김시훈, 고숙중, 김근조, 김근태
10. 김근태
11. 도박 피해자 고문수사, 김문수(서노련)
12. 인천사태, 도박피해자 고문수사
13. 인천사태, 김문수(서노련), 이세근(한강중화재), 이모피고인(특수절도혐의)  
별도(구속여성폭행 금지요구)
14. 이세근(한강중화재), 인천사태, 권인숙
15. 권인숙, 배영미(인천사태),  
별도(구치소 가혹행위)
16. 권인숙
17. 고문폭로대회, 권인숙, 권인숙 공대위 구성
18. 권인숙
19. 권인숙, 김한수의원,
20. 출판사, 기획사대표구속(14명)
21. 출판사, 기획사대표구속(14명)
22. 고문백서 내기로(민추협), 고문폭로대회 봉쇄
- 23.24. 김시훈, 야당의원 13명 고문(72. 10), 김근조, 권인숙
25. 민추협 수색(성고문폭로대회), 성고문폭로대회
26. 성고문폭로대회 봉쇄



27. 별도
28. 별도
29. 권인숙, 김근태, 김시훈, 고숙중, 김근조, 야당의원 13명고문(성명나열)
30. 박종철
31. 김시훈, 김근조, 고숙중, 권인숙
32. 박종철, 박모균(서울대 경제 83학번)의 고문, 장영인, 채모양, 최형우·김한수의원(야당의원 13명
- 33,34. 박종철
35. 김근조, 박종철, 김시훈, 권인숙, 고숙중, 김근태, 고문폭로대회
36. 별도
37. 박종철, 김근태, 이을호, 허인회, 문용식(민청련관련), 심윤남, 김동철, 김문수(인천사태), 권인숙, 신호수·우종원(삼민투)·김성수 (변사체)·
38. 박종철(법 마련)
39. 박종철(법 마련), 별도(대간첩대책회의)
40. 별도(각국의 고문사례)
41. 김근조
42. 박종철, 박호영·박해선·신백현(당구장여주인살인사건 누명), 고숙중
43. 정재용, 이을호, 강근호, 신윤남(82학번, 서울대프락치사건)
44. 고숙중, 김시훈, 권인숙, 박종철, 김근조, 김근태
45. 박종철
46. 박종철, 고숙중, 김근조 (별도-고문방지특별기구에 대한 각계의견)
47. 별도(고문후유증)
48. 조기영(국보법 위반)
49. 김근태, 박호영·박해선·신백현(당구장여주인살인사건 누명)
50. 별도
51. 고숙중, 김근조, 김근태, 권인숙, 박종철 (손해배상청구 사례와 의의)
52. 별도(각국의 인권보호 역사)
53. 별도(이회창인터뷰)
54. 우종원(85. 10), 김성수(86. 6), 신호수(86. 6)
55. 별도
56. 별도(특별법제정 방향에 관해)
57. 박종철, 김성수, 우종원, 신호수
58. 별도(특별법제정 공청회)
59. 이왕준(서울대자민투), 유시주(서노련), 이태복(민노련), 윤성구,

\*\*\*\*\* 변협 발간 「고문피해의 증언」 - 권인숙양등 고문사례 24건(온태희(인천사태), 김근태(민청련), 김정호(건대사태), 문용식(서울대민추위), 김시훈, 권인숙)

60. 별도(고문추방본부)
61. 별도(치본 고문근절대책)
62. 별도(정부 인권특위신설계획)
63. 별도(고문근절대책, 신고센터)
64. 별도(추도준비위 거리행진, 변협 고문추방운동본부)
65. 별도(고문대응 움집임)
66. 별도(고문추방국민운동본부, 교도소폭력행위추방대책 등)
67. 별도
68. 별도
69. 명노열(88. 1. 13 수원경찰서 수사중 뇌사)
70. 고모군(14세, h중 3)등 미성년 2명-강도강간혐의, 김인중, 김해성(목사), 윤여연(민청련-교도소내 고문) (고문신고센터 접수)
71. 별도
72. 권인숙(관련 문경사 수사, 대법원 인권수사 표명)
73. 별도(관련 문경사 수사, 대법원 인권수사 표명)
74. 이신범(김대중내란), 명노열,  
별도(국제고문방지협약가입검토)
75. 박종철, 권인숙, 김근태,  
우종원, 김성수, 신호수 (변사)  
김세진, 박영진, 오한섭,  
이한열, 이석규,  
김문수(서노련)  
이민영(반제동맹)  
이복진  
이철(재일교포유학생간첩단 사건)
76. 이영석·이해수(름살롱지배인폭행)
77. 별도(고문피해자치료)
78. 김근태(이재문, 이태복, 허인회), 문용식(민추위), 박문식(81. 전민련, 85. 민추위)  
김상복(86. 보임·다산기획사건), 이태복(81. 전노련), 이을호(85. 민청련), 노향기(80. 기협 계엄 포고령위반사건), 허인회(85. 삼민투), 고경대·고경미남매(86. 보임·다산기획사건)
79. 별도(고문피해증상)

80. 별도
81. 별도
82. 이수원, 백영기, 김경범(여고생살인누명)
83. 남민전(79), 김성학(납북어부간첩조작. 85), 반제동맹(86) - (이근안)
84. 이태복, 김영애
85. 남민전(79), 김태홍, 라원규(기자협. 80), 무림·전노련(81), 박충렬·이민영·우종원(반제동맹. 86) - (이근안)
86. 별도 ? (김영수 고문사진전)
87. 별도 ? (김영수 고문사진전)
88. 김근태·박충렬·이민영(반제동맹), 김태홍·라원규(기자협), 이철일(남민전), 우종원
89. 별도(검찰의 구태의연한 자체 감사)
90. 김근태, 이수일(남민전), 박충렬, 이민영(반제동맹) - (이근안)
91. 권인숙(재판재정신청), 김근태  
 \*\*\*재정신청이란?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결정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정한 기일 안에 고등 법원에 그 당부를 묻는 일.
92. 황인호, 황인호의 여동생, 권운상 (80. 미스유니버스대회폭파 음모사건)  
 김성식, 윤성구, 김찬 (제헌의회사건)  
 김문수(서노련. 86)등 14명
93. 별도(고문피해)
94. 권운상(80. 미스유니버스대회폭파 음모사건), 박문식(81. 전노련)
95. 문용식(민추위. 사망), 박문식, 김상복(보임·다산사건), 이태복(전노련), 권인숙, 김문수(서노련), 김시훈, 황인호(80. 미스유니버스대회폭파 음모사건)
96. 별도(고문방지대책)
97. 권오정(절도허위신고)
98. 권오정
99. 박충렬, 이승룡(반제동맹) - (이근안)
100. 강정순, 박아무개(17. 78), 김아무개(24. 84), 스양(86), 신아무개(26. 87) (성고문피해자)
101. 오봉옥
102. 별도(신대근, 구만희, 김용운, 이상학, 김동하, 박무남 - 형사범 무리한 구형)
103. 박충렬, 이민영 - (이근안)
104. 황종수, 김진한 등 15명 (창원노동자) - 전자봉고문
105. 정택구, 김진한 (창원노동자) - 전자봉고문
106. 이철규

107. 이철규  
별도(법의학 악용 당해)
108. 별도(86-88. 고문경찰관 72명 고소, 고발 통계)
109. 별도(사회안전법 - 보안감호)
110. 김근태, 권인숙, 박종철 - (손해배상, 이근안) - 129와 동일
111. 차일환(화가), 서경원(의원), 홍성담, 문부식, 고현주
112. 차일환, 홍성담, 정하수
113. 차일환 등
114. 홍성담, 차일환, 정하수, 서경원, 이길재, 방양균, 박충렬 (별도 - 잠고문)
115. 차일환, 김근태 (별도)
116. 김정환(양심선언)
117. 김정환
118. 김정환
119. 김정환
120. 김정환
121. 별도
122. 김정환
123. 방양균, 홍성담 (별도)
124. 홍성담
125. 홍성담
126. 박명률
127. 김성학(남북어부 간첩조작)
128. 신모균 등 3명. (노동관련 포스터부착하다 연행. 고교생)
129. 김근태, 권인숙, 박종철 - 이근안
130. 이인원(뇌물수취 공무원 고문)
131. 이인원
132. 이인원
133. 별도 (시민폭행치사사건 관련 경관 2명 3년 선고)
134. 이창국(장로. 간첩 조작)  
이한열 추모문집발간 (별도)
135. 김영애
136. 박충렬(반제동맹), 홍성담, 차일환, 김성학(남북어부), 김근태, 권인숙 (고문사건 수사과정, 결과)
137. 차일환

138. 김진기, 김진석(치본, 주택공사 전세금)
139. 김진기, 김진석(치본, 주택공사 전세금)
140. 김진기, 김진석(치본, 주택공사 전세금)
141. \*\*\*\*\* 「전세계고문」 정재용, 고문자료집(570쪽)
142. 별도(각국고문성행)